



鄭玄順

환경상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산업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실시로 마구 버려지던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폐기 쓰레기의 감량화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보다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실시로 돌출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시간과 정성과 돈을 투자하여 어렵게 분리수거한 폐자원이 제대로 재활용 처리되지 못하고 매립, 소각되고 있다는 것은 자못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 및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국민생활 차원에서 정말 폐기물이라고 생각되는 폐자원들, 즉 건축폐기물, 슬러지, 폐유,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그 처리 및 관리에 고심하게 되는 폐기물들을 자원의 개념을 가지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활용 제품 생산에 노력하는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 재활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기본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의 시행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우리가 노력하여 분리 배출한 자원이 다시 우리의 손에 새로운 제품이 되어 돌아왔을 때 우리의 환경살림에 대한 의식과 노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리사이클링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수요처 확보라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 실

정에 비취볼 때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6년전부터 많은 폐기물 처리 및 수거업자와 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상품을 만들고 있는 산업체들에 정보제공 및 사업지도를 해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차원의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첫째, 쓰레기 처리 문제의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제품을 정부에서 의무 구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 홍보(쓰레기종량제 대처 요령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각 가정, 업소, 기업, 단체 등에 배포)를 해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업자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 산업체에 폐자원이 직접 전달되어 원가절감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렇게 재활용된 제품을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취급하도록 한다면 환경상품에 종사하고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판로 마련 및 국민들의 구매 사용에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재활용 산업의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다 나은 형태의 생산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비가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사실 폐기물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합성수지를 좋은 목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수요처와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냥 매립 및 소각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는 폐자원의 리사이클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 당국이 맡을 수 밖에 없다. 각 부처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재활용 사업 및 환경상품 제조업체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환경상품사업협동조합은 거시적으로 국가적 현안문제인 환경오염 방지 및 축소를 통해 국민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환경상품 제조업체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국가환경사업 차원에서 그 존재는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재활용 상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홍보가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재활용 제품의 경우 폐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기존 상품에 비해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반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렵게 생산된 재활용 상품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상품들은 KS 규격에 충분히 합격될 수 있는 제품들이거나, 또는 재활용 상품에 대한 KS 규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마크 획득이 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또한 가격면에서 기존 업체에서 오랜 노하우를 갖고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에 시판되는 제품들에 비교한다는 것은 현 재활용 업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 개발에 힘써 개발한 숨은 노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협조가 거시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감소에 따른 국가적 이익 창출로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며, 환경 측면에서는 오염 방지 및 축소를써 국가적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